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1년 3월 생산은 전월대비 0.8% 증가(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8%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5.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기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7%).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에서 줄었으나,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7.8%).

#### ◆ 2021년 3월 소비는 전월대비 2.3%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보합

- 소매판매액지수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1.0%)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9.1%), 화장품 등 비내구재(1.5%)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2.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0.9%).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1%) 투자가 늘었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0.5%)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9.3%)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4%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5.6%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3월	2월p	3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0.4	2.1 ( 0.4)	0.8 ( 5.8)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4.2	4.4 ( 0.9)	-0.8 ( 4.7)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4.5	4.9 ( 1.0)	-0.8 ( 4.7)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2.7	6.6 (-8.5)	0.4 (-5.7)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4.1	1.1 ( 0.7)	1.2 ( 7.8)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0.4	-0.8 ( 8.3)	2.3 (10.9)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8.1	-2.2 ( 7.0)	0.0 ( 9.3)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6	0.1 ( 1.5)	0.2 ( 2.3)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함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4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1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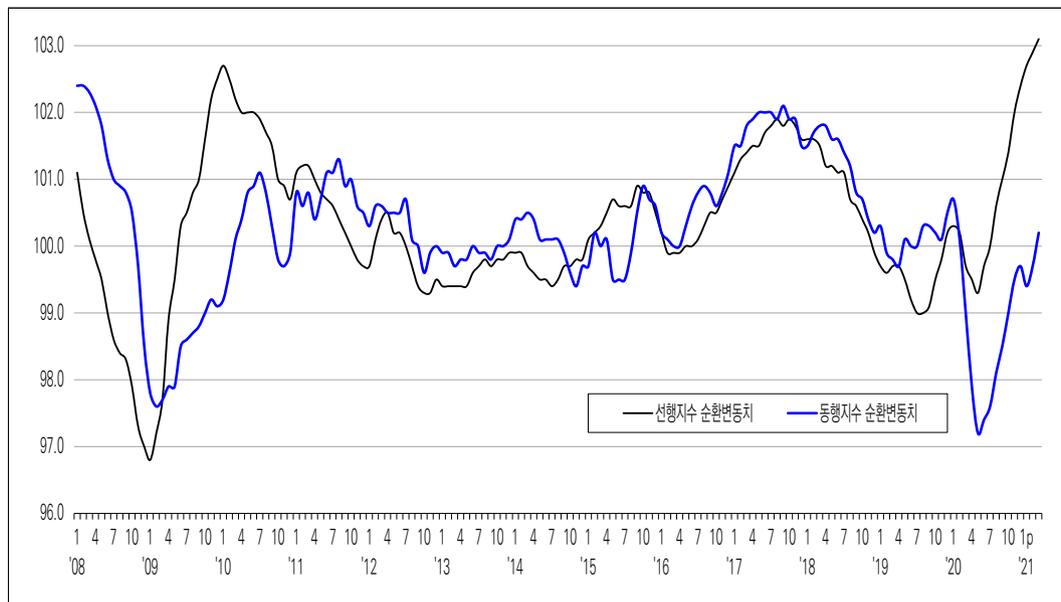
○ 2021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100)로 전월대비 0.2% 상승함(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 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오락·문화(1.6%), 교통(0.7%), 음식·숙박(0.5%), 기타 상품·서비스(0.5%), 교육(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주류·담배(0.4%)는 상승,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은 변동 없으며, 보건(-0.2%), 의류·신발(-0.3%), 식료품·비주류음료(-0.2%)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월대비 0.1% 하락,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함.

◆ 2021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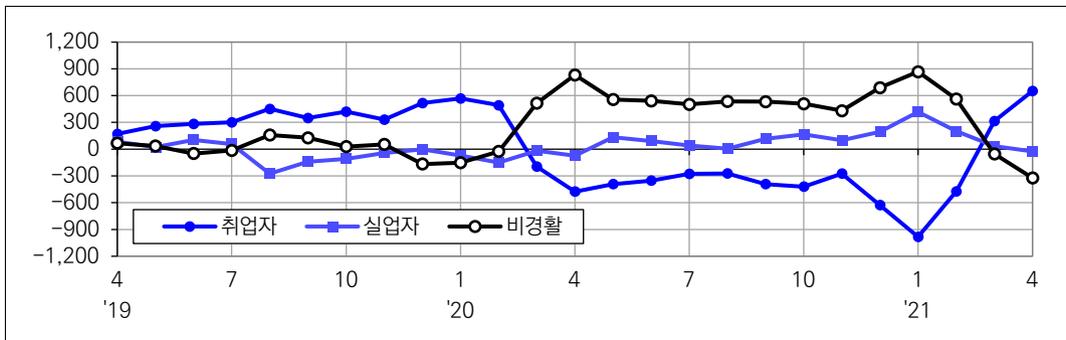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폭 확대, 실업자는 감소 전환

○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5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전월대비) 1) 6만 8천 명 증가).

- (산업별) 4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 전환함. 피보험자는 증가 추세를 이어 감.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됨. 음식·숙박업은 임시직 취업자가 증가 전환되며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로 돌아섬. 운수창고업은 상용직 고용이 개선되며 증가폭이 확대됨. 교육서비스업은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이어짐. 보건·복지는 4월에도 증가폭의 확대를 이어 감.
- (연령별) 4월 20대 취업자 수는 큰 변동이 없음. 30대와 4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세를 이어 가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감소함. 50대는 건설업 및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60세 이상은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4월은 일용직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고용이 개선됨. 임금근로자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함. 자영업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4월 일시휴직자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8만 2천 명 감소함. 임시직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에서 크게 감소함.
- (실업자) 4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5천 명으로 감소 전환(3월 +3만 6천 명)함. 20대는 4월 구직 관련 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며 실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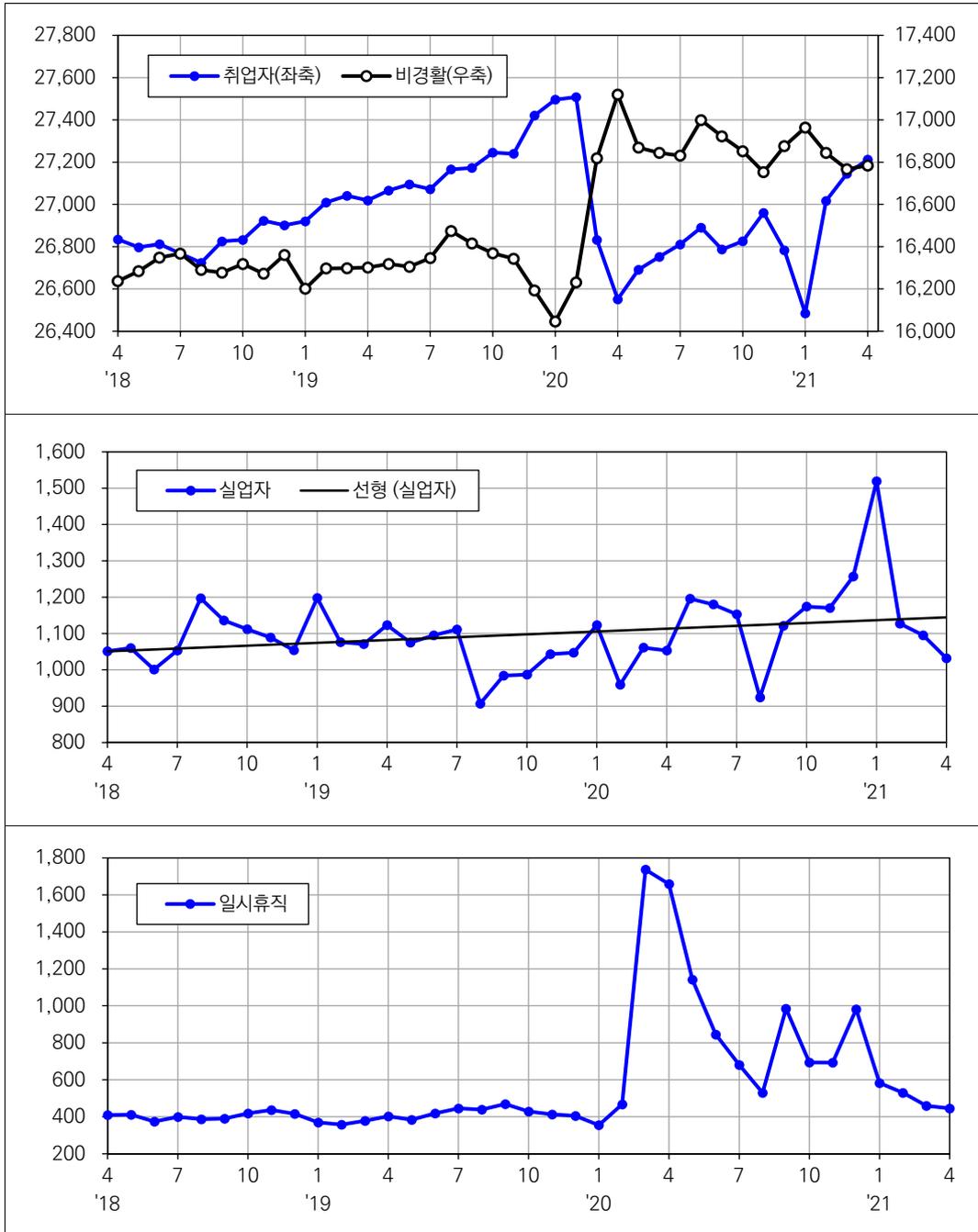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4월은 전년동월대비 전 연령에서 고용과 비경황이 개선됨.

- 20대 취업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구직 단념자가 감소하며 비경황 감소폭이 축소됨.
-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률이 증가로 전환됨.
- 50대는 건설업 및 도소매와 숙박·음식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함. 60세 이상은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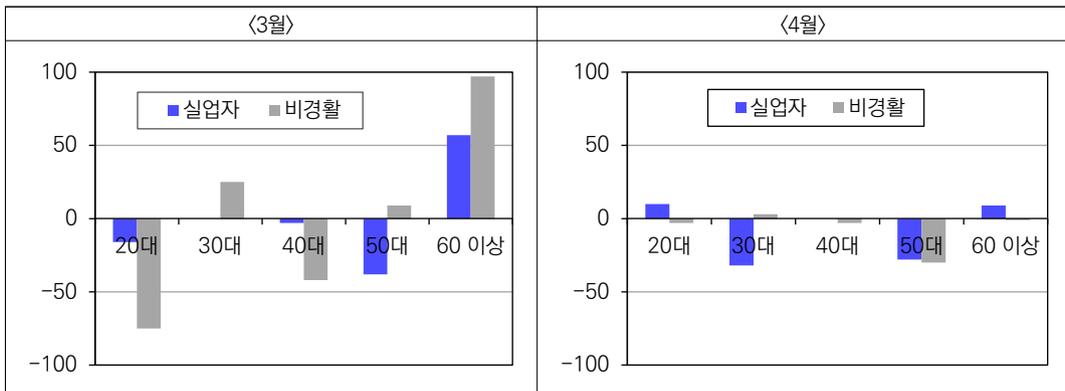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37	18	47	(11)	-106	130	132	(-8)	-238	-170	-98	(16)
실업자	3	-2	-1	( 0)	32	25	52	(10)	29	38	1	(-32)
비경황	-126	-175	-202	(-24)	91	-133	-157	(-3)	58	-19	-53	(3)
실업률	3.2	-2.0	-3.4	(-0.5)	1.0	0.3	0.9	(0.3)	0.7	0.8	0.1	(-0.6)
고용률	-1.0	1.2	2.4	(0.6)	-1.7	1.8	1.8	(-0.1)	-1.7	-0.8	0.2	(0.3)
	40대				50대				60세 이상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166	-85	-12	(-5)	-139	13	113	(56)	212	408	469	(48)
실업자	15	-2	-11	( 0)	52	-10	-58	(-28)	70	-15	-9	(9)
비경황	83	17	-49	(-3)	77	-15	-69	(-30)	379	270	207	(-1)
실업률	0.3	0.0	-0.2	(0.0)	0.9	-0.1	-0.9	(-0.4)	1.0	-0.6	-0.5	(0.1)
고용률	-1.4	-0.4	0.6	(0.1)	-1.5	0.3	1.4	(0.7)	-0.4	1.1	1.5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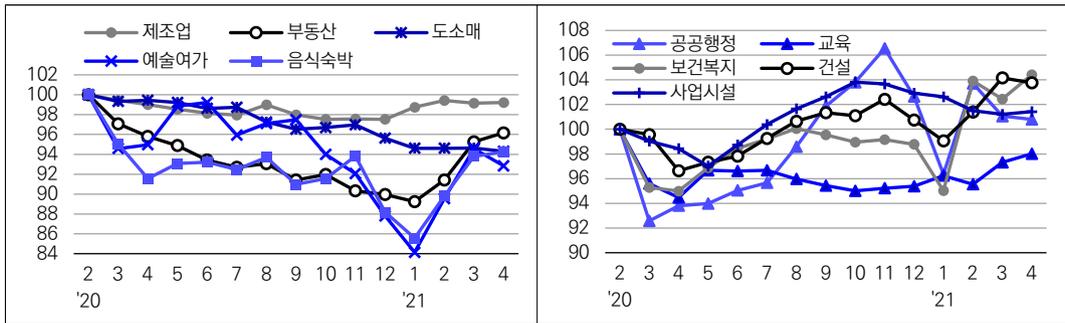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예술·여가, 음식·숙박, 부동산, 건설업이 회복세가 둔화됨. 제조업, 도소매 및 사업시설은 정체 상태임. 교육은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임.
-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은 지난해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33	-26	-3	20	-89	-39	-108	-7.1
광업	-1	-4	-2	0	-1	0	-1	-7.7
제조업	-27	-11	9	30	-12	3	21	0.5
전기·가스·증기	-5	0	-1	0	0	-7	-7	-9.7
수도·원료재생	14	18	19	-1	5	5	9	5.7
건설업	28	92	141	47	56	-8	95	4.7
도매 및 소매업	-194	-168	-182	0	1	-12	-11	-0.3
운수 및 창고업	25	72	107	7	23	13	43	2.8
숙박 및 음식점업	-232	-28	61	97	91	11	199	10.2
정보통신업	-5	31	41	9	33	16	58	6.9
금융 및 보험업	5	22	27	-3	9	9	15	1.9
부동산업	-47	-10	1	12	21	5	38	7.8
전문·과학·기술	-8	65	64	6	20	12	38	3.2
사업시설관리지원	20	28	39	-15	-4	3	-16	-1.2
공공행정·사회보장	38	94	80	83	-30	-3	50	4.6
교육서비스업	-82	32	66	-13	33	13	33	1.8
보건 및 사회복지	91	171	224	211	-35	47	223	9.9
예술·스포츠·여가	-52	1	-11	28	26	-9	45	10.3
협회·단체·수리·기타	-84	-71	-30	28	-8	0	20	1.8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7	4	2	1	-4	-1	-4	-4.2
국제 및 외국기관	2	2	-1	1	0	-2	-1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4월은 일용직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전년동월대비 고용이 개선됨.
- 상용직과 임시직의 증가폭이 확대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은 축소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운수창고에서 증가 전환함. 정보통신, 사업관리, 보건복지에서 증가폭 확대됨.
  - 임시직은 대면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고용이 개선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도소매에서 감소폭 축소.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82	208	311	34	95	-38	91	0.6
임시직	-317	206	379	315	156	92	563	13.7
일용직	-80	41	38	111	68	-55	124	10.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6	-94	-65	9	-10	24	23	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5	13	27	18	-43	6	-19	-0.5
무급가족종사자	-47	-60	-39	43	-31	1	13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농림어업	-5	-15	-9	4	4	7	-3	6	2	-2	-2	1	28	3	9
제조업	54	67	69	-54	-38	-38	-1	-7	-18	-31	-27	-11	12	-4	2
건설업	26	41	46	-5	-6	7	5	51	74	-10	2	5	11	1	4
도소매	-55	-75	-106	-39	11	21	-8	-12	-25	-27	-24	-16	-29	-37	-24
운수창고	-36	-11	23	18	14	29	-1	17	12	11	10	8	34	41	34
음식숙박	-41	-6	4	-141	-25	31	-24	10	7	-27	-2	6	9	0	9
정보통신	-6	33	47	14	15	12	-7	-5	-3	-2	-2	-1	-3	-8	-13
금융보험	5	5	-12	-8	11	24	-1	-1	0	3	1	2	8	7	14
부동산	3	17	12	-24	-15	2	-1	-1	4	-16	-11	-15	2	10	10
전문과학기술	-3	50	45	7	9	25	-1	-2	0	-14	2	-6	9	10	5
사업관리지원	48	38	60	-20	-6	-19	-1	0	0	-12	-14	-14	4	6	7
공공행정	41	39	46	-2	54	42	-1	1	-8	-	-	-	-	-	-
교육서비스	14	8	14	-54	43	67	1	1	0	1	-3	-3	-52	-31	-25
보건복지	56	35	65	50	143	168	-6	-2	-1	-8	-4	-3	-3	0	-3
예술스포츠	9	14	5	-22	17	15	-22	-22	-15	-13	-12	-11	-6	5	-1
협회단체	-36	-44	-11	-53	-30	-9	-3	8	5	-11	-7	-8	19	9	-2
가구 내 고용	-2	-1	1	16	12	4	-5	-2	-1	-	-	-	-3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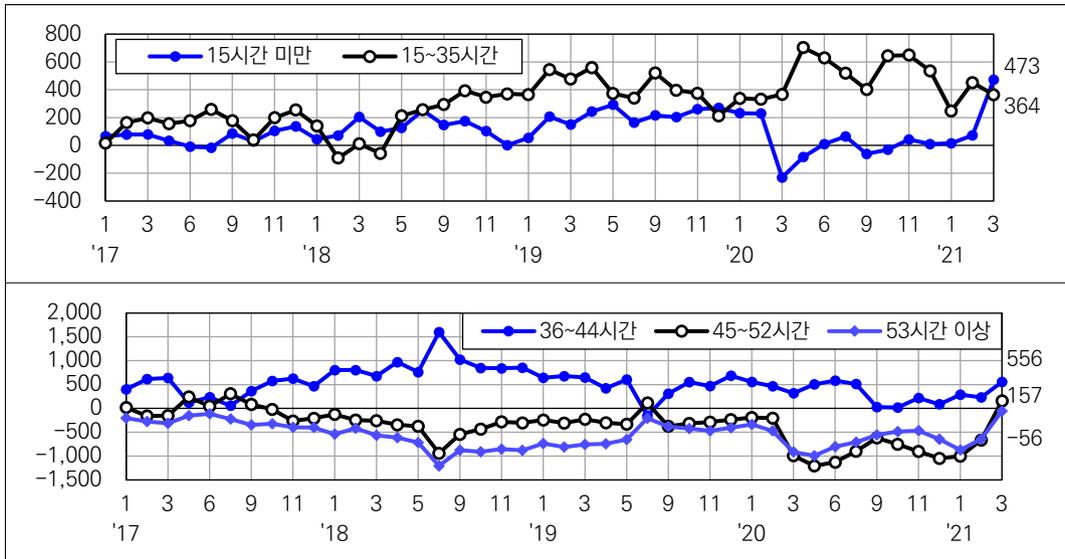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4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4시간 증가함.

- 이는 2020년 4월 조사 대상 주간에 선거일이 포함되어 취업시간이 감소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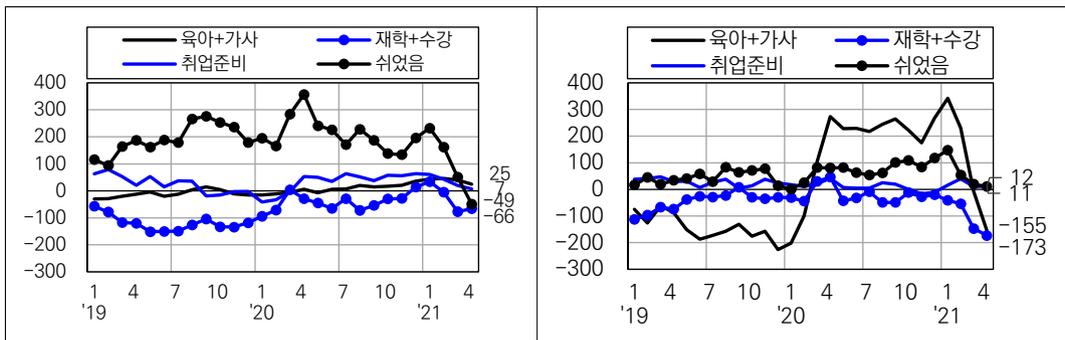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월동월대비 32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3월 -5만 4천 명)됨.

- 여성은 육아·가사의 감소폭 확대. 남성은 쉬었음에서 감소 전환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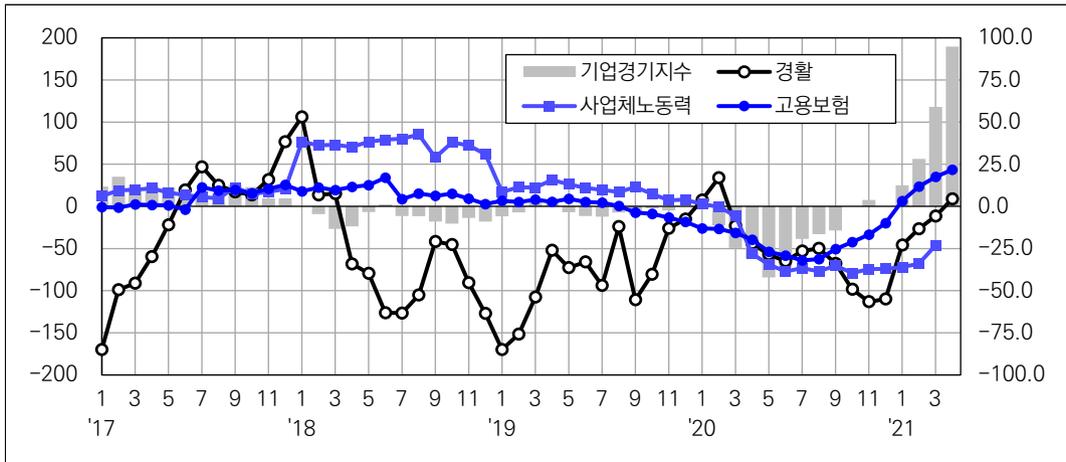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 전환, 서비스업은 대면 및 공공서비스에서 취업자 증가 지속

○ 2021년 4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9천 명으로 증가 전환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경기지수는 증가폭의 확대를 지속함. 피보험자 수로 보면, 제조업 중 식료품, 섬유제품, 의료정밀, 전기장비, 자동차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큰 변화는 없음.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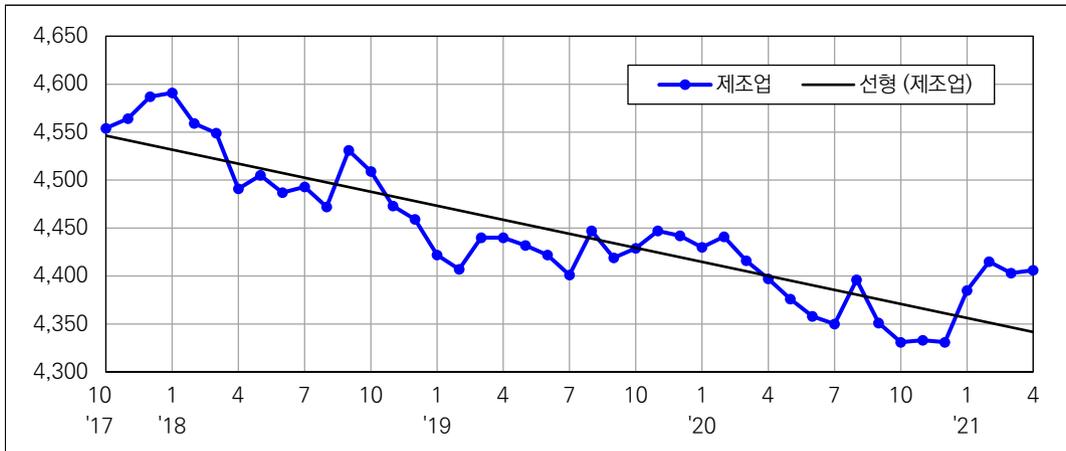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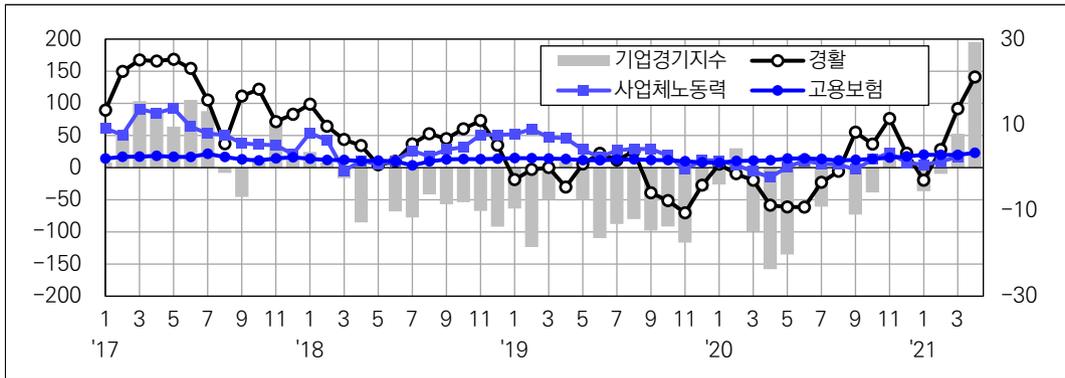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4월 건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폭의 확대를 이어 감.
  - 기업경기지수는 큰 폭으로 개선됨.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폭을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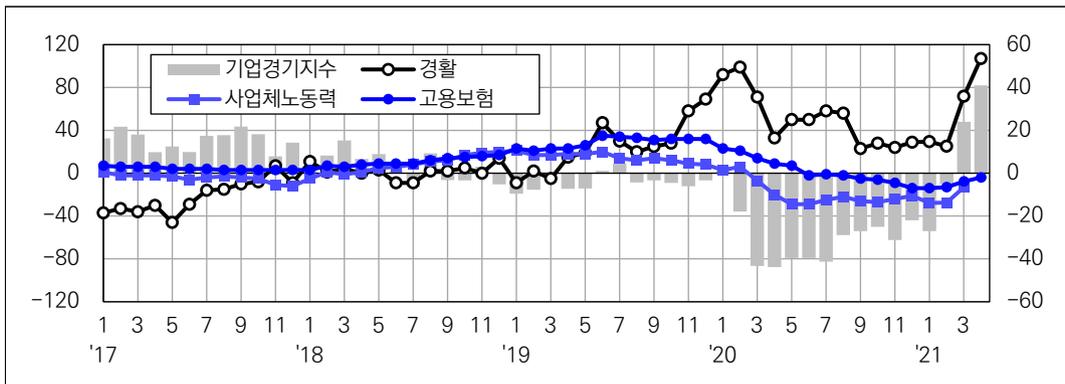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4월은 대면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에서 고용 개선이 이어짐.
  - (운수·창고)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증가 전환됨. 임시직 및 30대는 증가폭이 확대됨.
  - (숙박·음식)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이 증가 전환하며 전체 취업자도 증가 전환함.
  - (교육서비스)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여성의 증가폭이 확대됨. 30대는 증가 전환함. 규모별로는 5인 미만과 30~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보건·사회복지) 상용·임시직, 여성, 40세 이상의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10]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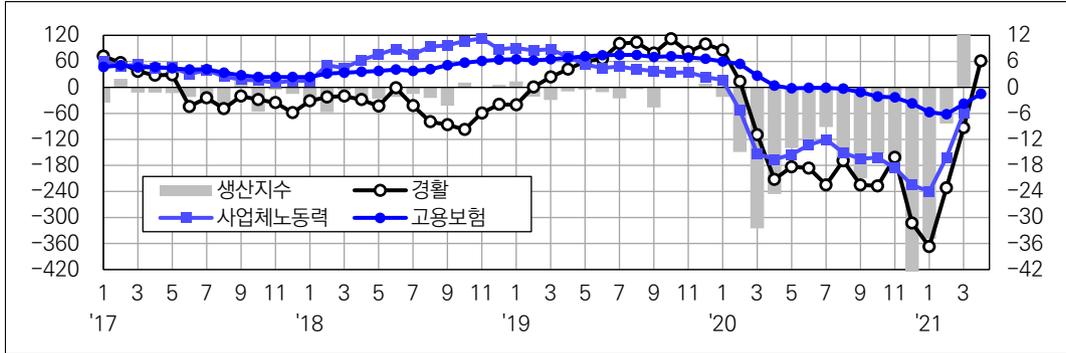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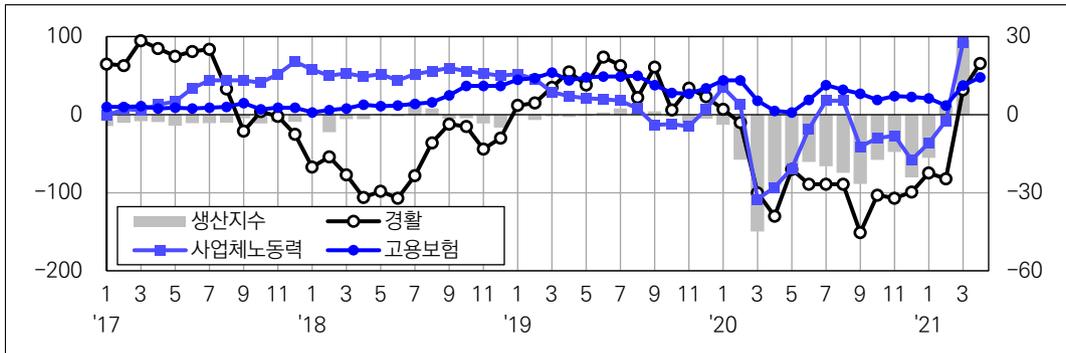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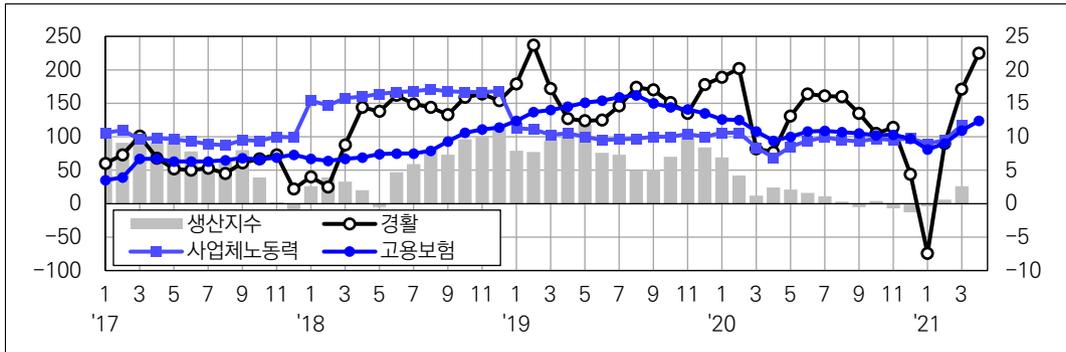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사회복지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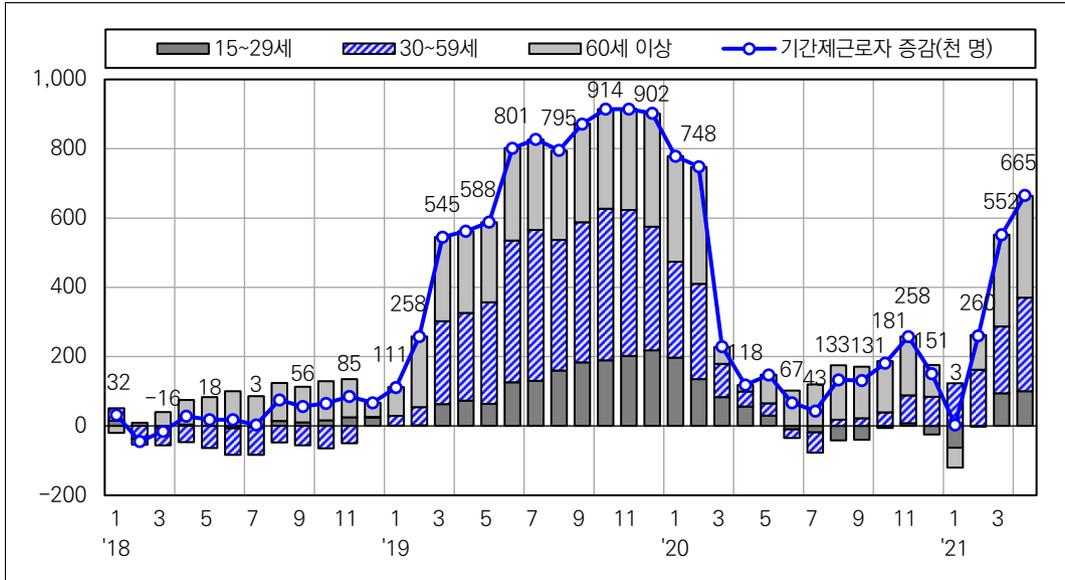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4월 기간제 근로자는 임시직 고용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6만 5천 명 증가함. 주로 상용직과 임시직 및 30~59세에서 증가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1년 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

○ 2021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5만 원(16.1%)임.

- 2021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7만 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4%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57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명절상여금 지급 시기 차이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데 기인함.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비상용근로자 감소 및 명절상여금 지급 시기 차이 등의 영향임.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2월	2월	1~2월	2월	
전체 근로자	3,207	3,376	3,490	3,527	3,749	3,403	3,914	3,950	
임금총액	( 3.3)	( 5.3)	( 3.4)	( 1.1)	(-1.2)	(-6.6)	( 4.4)	(16.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3,592	3,702	3,719	3,964	3,587	4,132	4,176
	( 2.6)	( 5.1)	( 3.1)	( 0.4)	(-1.5)	(-7.2)	( 4.2)	(16.4)	
	정액급여	2,764	2,891	3,010	3,077	3,085	3,031	3,163	3,110
	( 3.6)	( 4.6)	( 4.1)	( 2.2)	( 2.6)	( 2.3)	( 2.5)	( 2.6)	
초과급여	190	197	202	200	198	199	197	197	
( 0.6)	( 3.7)	( 2.7)	(-0.9)	(3.9)	( 5.6)	(-0.2)	(-1.1)		
특별급여	464	504	490	441	681	357	771	869	
(-2.2)	( 8.5)	(-2.8)	(-9.9)	(-17.9)	(-50.1)	(13.2)	(143.8)		
임시·일용근로자	1,353	1,428	1,517	1,636	1,542	1,460	1,643	1,570	
임금총액	( 5.1)	( 5.5)	( 6.2)	( 7.8)	( 5.4)	( 5.2)	( 6.6)	( 7.5)	
소비자물가지수	103.0	104.5	105.1	105.7	105.8	105.8	107.0	107.0	
( 1.9)	( 1.5)	( 0.4)	( 0.5)	( 1.3)	( 1.1)	( 0.9)	( 1.1)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2.4	-7.6	3.5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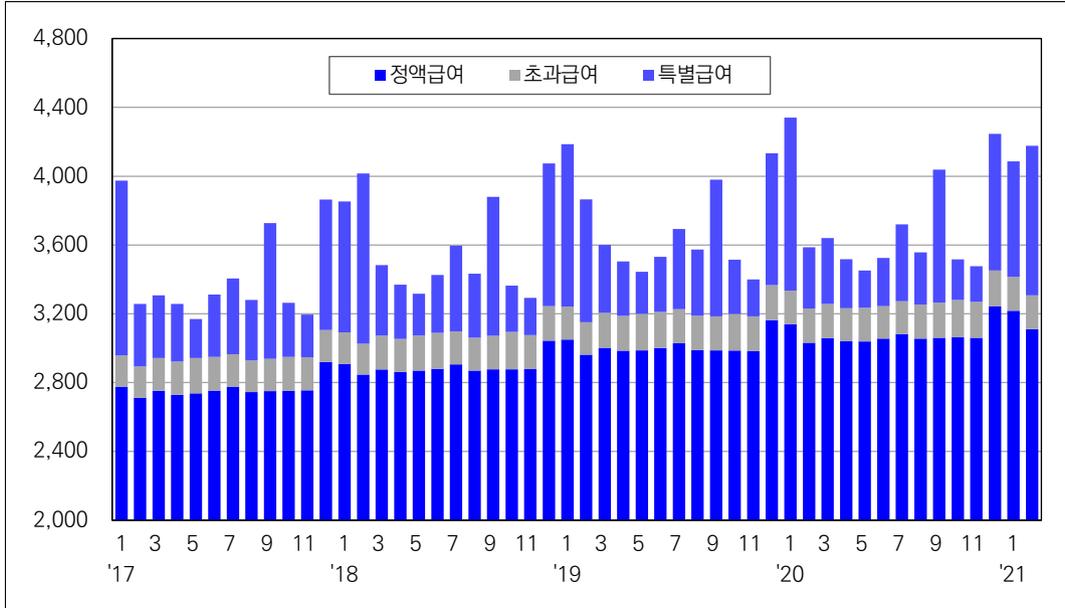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단위: 천 원)



◆ 2021년 2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 증가

○ 2021년 2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2.7%, 25.5%임.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25.5% 증가함.
- 전반적으로 명절상여금 지급 시기 차이로 임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증가는 제조업 일부 산업의 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의 영향에서 기인함.
-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1%, 26.3% 증가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 4.6)	3,139 ( 4.0)	3,193 ( 1.7)	3,292 ( 1.1)	3,081 ( -3.4)	3,396 ( 3.2)	3,472 ( 12.7)
	상용임금총액	3,217 (11.5)	3,338 ( 3.7)	3,377 ( 1.2)	3,490 ( 0.8)	3,260 ( -4.0)	3,594 ( 3.0)	3,685 ( 13.1)
	정액급여	2,723 ( 4.7)	2,841 ( 4.3)	2,915 ( 2.6)	2,915 ( 3.0)	2,877 ( 2.7)	2,992 ( 2.7)	2,955 ( 2.7)
	초과급여	172 ( 4.8)	175 ( 2.0)	171 ( -2.4)	168 ( 2.3)	170 ( 4.9)	166 (-1.4)	166 ( -2.6)
	특별급여	322 ( 1.9)	322 (-0.2)	292 ( -9.4)	407 (-13.0)	212 (-50.8)	436 ( 7.2)	564 (165.8)
	비상용임금총액	1,422 ( 5.3)	1,505 ( 5.8)	1,615 ( 7.3)	1,513 ( 4.9)	1,432 ( 5.3)	1,606 ( 6.1)	1,520 ( 6.1)
대규모	소 계	5,305 ( 6.5)	5,356 ( 1.0)	5,242 ( -2.1)	6,135 ( -8.0)	5,079 (-16.4)	6,533 ( 6.5)	6,375 ( 25.5)
	상용임금총액	5,474 ( 6.4)	5,492 ( 0.3)	5,335 ( -2.8)	6,253 ( -8.3)	5,165 (-16.8)	6,649 ( 6.3)	6,483 ( 25.5)
	정액급여	3,735 ( 3.8)	3,843 ( 2.9)	3,847 ( 0.1)	3,909 ( 0.8)	3,772 ( 0.3)	3,965 ( 1.4)	3,836 ( 1.7)
	초과급여	324 ( 0.0)	335 ( 3.5)	340 ( 1.4)	340 ( 6.8)	341 ( 6.0)	344 ( 1.3)	346 ( 1.4)
	특별급여	1,415 (15.7)	1,313 (-7.2)	1,149 (-12.5)	2,005 (-23.5)	1,052 (-50.4)	2,340 (16.7)	2,301 (118.8)
	비상용임금총액	1,509 ( 7.8)	1,712 (13.4)	2,029 ( 18.5)	2,076 ( 12.6)	1,985 ( 5.4)	2,334 (12.4)	2,506 (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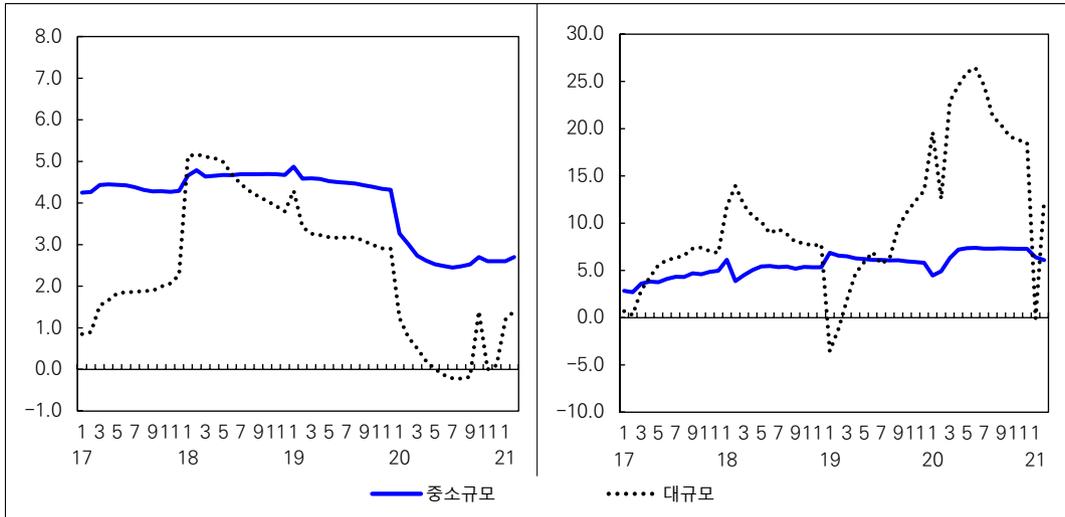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2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12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842만 4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10만 2천 원), 정보통신업(541만 8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39만 4천 원)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2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0만 7천 원)이며,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55만 4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79만 3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395만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749	3,403	3,914( 4.4)	3,950(16.1)
광업	3,835( 3.3)	3,977( 3.7)	4,325	3,849	4,697	4,438( 2.6)	4,288( 8.5)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4,248	5,098	4,729( 6.9)	4,606(22.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131	5,925	5,892( 1.4)	6,102( 7.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3,431	4,131	4,038( 5.5)	4,118(17.1)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2,945	3,325	3,150( 0.3)	3,149( 6.6)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417	3,903	3,703( 2.7)	3,796(14.8)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391	3,908	3,876( 5.7)	3,891(13.6)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881	2,023	1,910(-2.0)	1,907( 1.8)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627	5,152	5,194( 4.0)	5,418(12.0)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6,783	8,065	8,065(10.4)	8,424(28.8)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712	3,089	3,025( 4.0)	3,144(1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4,881	5,559	5,203( 1.3)	5,394(14.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327	2,540	2,521( 2.9)	2,554( 8.4)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534	4,100	3,658(-1.0)	3,747(14.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2,939	3,191	3,058( 1.3)	3,114( 9.3)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774	3,173	3,076( 3.2)	3,163(13.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499	2,757	2,753( 6.0)	2,793(14.8)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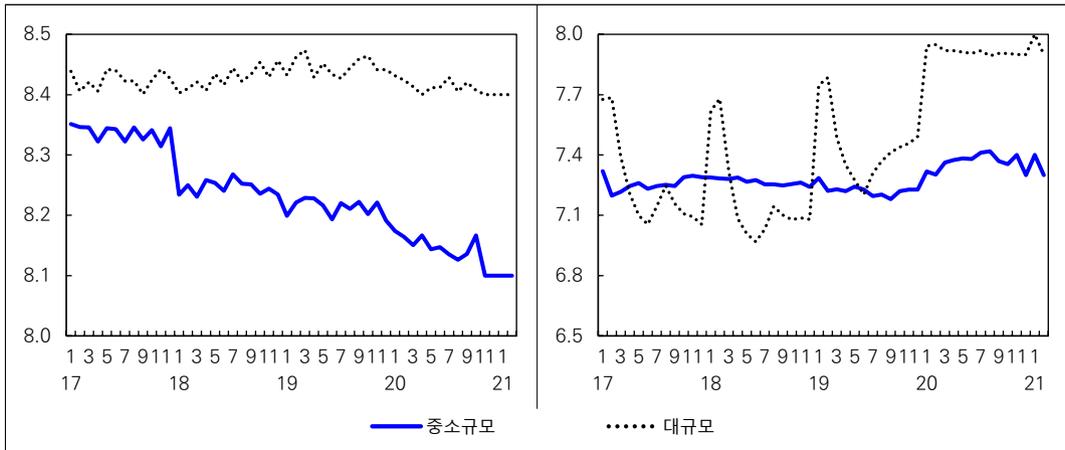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42.8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4.3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20일로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

-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한 것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비춰 볼 때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21년 2월 중소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42.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4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3시간으로 14.2시간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이 87.7시간, 대규모 사업체가 12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6% 증가, 2.5%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 전체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상용근로자가 증가한 데 기인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56.9( 0.3)	156.5(10.7)	149.4(-4.8)	142.1(-9.2)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4.1( 0.3)	164.0(13.2)	155.6(-5.2)	148.0(-9.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56.5( 0.8)	156.3(11.4)	148.2(-5.3)	140.8(-9.9)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7(-7.2)	7.7(67.4)	7.4(-3.9)	7.2(-6.5)
	비상용근로시간	99.2(-6.1)	95.4(-3.8)	96.1( 0.7)	92.0(-2.7)	87.2( 3.4)	93.2( 1.3)	87.7( 0.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 0.5)	162.8(-0.8)	159.8( 1.3)	160.5(13.2)	153.3(-4.1)	146.3(-8.8)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0.9( 1.1)	161.6(13.1)	154.0(-4.3)	147.0(-9.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 0.0)	153.0(-1.2)	149.7( 1.1)	150.4(14.2)	143.0(-4.5)	136.1(-9.5)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1.2( 0.9)	11.1( 0.0)	10.9(-2.7)	10.9(-1.8)
	비상용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4.0( 6.9)	124.2(16.8)	127.3( 2.7)	121.1(-2.5)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58.0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20.5시간)임.

○ 2021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업(157.1시간), 부동산업(154.7시간), 제조업(154.0시간) 순으로 나타남.

－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이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21.3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30.3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31.8시간) 등으로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57.4	157.1	150.0(-4.7)	142.8(-9.1)
광업	176.6(0.5)	175.7(-0.5)	181.2	173.2	176.8	168.4(-2.8)	157.1(-11.1)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69.1	169.8	162.4(-4.0)	154.0(-9.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0.8	159.7	157.1(-2.3)	149.2(-6.6)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0.4	171.6	166.5(-2.3)	158.0(-7.9)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4.3	132.0	128.4(-4.4)	121.3(-8.1)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0.1	159.9	153.2(-4.3)	146.0(-8.7)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8.9	158.1	149.8(-5.7)	143.9(-9.0)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50.6	148.6	137.2(-8.9)	130.3(-12.3)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59.8	160.3	152.6(-4.5)	145.2(-9.4)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58.1	158.4	151.3(-4.3)	144.2(-9.0)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68.5	167.4	162.1(-3.8)	154.7(-7.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57.7	158.9	150.7(-4.4)	143.3(-9.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59.1	158.4	151.6(-4.7)	144.8(-8.6)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0.5	130.5	125.3(-4.0)	120.5(-7.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5.1	154.4	146.8(-5.4)	140.0(-9.3)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48.3	145.9	134.5(-9.3)	131.8(-9.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54.8	155.2	151.5(-2.1)	143.4(-7.6)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3건
  - 4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4월 조정성립률 0.0%
  - 4월 조정성립률은 전년동월 성립률 0.0%와 동일한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4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4.	3	3	0	0	0	3	0	3	0	0	3	0.0
2020. 4.	2	2	0	0	0	2	0	2	0	0	1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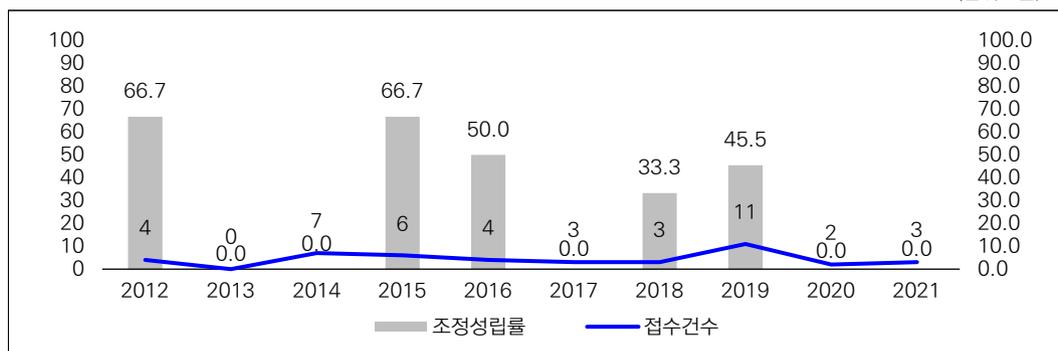
〈표 2〉 2012~21년 4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4.	2013. 4.	2014. 4.	2015. 4.	2016. 4.	2017. 4.	2018. 4.	2019. 4.	2020. 4.	2021. 4.
접수 건수	4	0	7	6	4	3	3	11	2	3
조정성립률	66.7	0.0	0.0	66.7	50.0	0.0	33.3	45.5	0.0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2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심판사건

- 2021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99건
  - 4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동월(154건)보다 45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4%(5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6%(156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4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4.	199	212	51	5	93	24	28	11	501
2020. 4.	154	100	13	4	33	7	29	14	50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8건
  - 4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 건수는 전년동월(4건)보다 4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0%(1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4.	8	2	0	1	1	0	0	0	13
2019. 4.	4	9	2	0	6	0	1	0	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소방공무원 첫 노조 7월 출범

-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설립 허용
  - 4월 26일 한국노총은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춰 전국소방노조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소방공무원은 그간 노조 설립·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음. 2020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해졌음.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은 약 6만 명에 달함.
- 전국소방노조 준비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노후화된 장비는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소방공무원 노동자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었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처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음. 이어 “노후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등 소방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음.
-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됐지만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금지돼 있어 쟁의행위는 불가함. 이에 한국노총은 2020년 2월 공무원노조에 전임자를 보장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철폐하라며 헌법소원을 냈음.

#### ◆ 현대차그룹 사무직 노조 설립 신고

##### ○ 비정규직·계약직도 가입

- 4월 26일 현대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연구직의 목소리를 전달할 새로운 창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별도 노조 설립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 현대캐피코 소속 이진우 노조위원장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공정성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 도입이 조합원들에게 동기 부여로 이어져 결국은 기업의 조직 효과성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고 하였음.
- 사무·연구직 노조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그룹 직원 중 가입 의사를 밝힌 직원은 500여 명이나 노조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계약직, 별정직까지 모두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임.
- 당초 노조는 회사별로 조합을 결성할 계획이었지만 신분 노출 우려를 감안해 그룹사 차원에서 산별 노조를 만든 뒤 회사별 지부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음.

#### ◆ KEB하나은행 노사 2020년 임단협 합의

##### ○ 취약 노동자 연대임금 지원

- 4월 20일 KEB하나은행 노사는 을지로 본점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음.
- 노사는 △종합근무평정 중심의 승진제도 강화 △영업점 실적 줄 세우기 경영 방침 폐기

△시간외수당 및 보상휴가 정상화 △성과급제도 정상화 △CS 관련 현장 모니터링 폐지에 합의했음.

- 2020년 금융 노사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은 1.8%에 합의하고 취약 노동자 지원에 쓰기로 했음. 보로금은 타행 수준에서 합의했음. 4월 15~16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3%, 찬성률 80.03%로 가결됐음.

### ◆ 청주방송 프리PD · 작가 등 12명 첫 근로자 인정

#### ○ 고용부 “불법 파견”… 회사, 체불임금 줘야

- 4월 26일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PD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PD와 방송작가 등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음.
- 근로감독은 2020년 2월 청주방송 프리랜서PD였던 고 이재학씨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음.
- 고용부는 프리랜서PD 3명 전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음. 프리랜서이지만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PD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판단했음. 방송작가는 9명 중 5명, 방송 송출을 위한 프로그램·광고 등을 총괄하는 MD 4명도 근로자로 인정됐음.
-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소속이나 정규직 PD 등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임.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체불임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방송사 PD 등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음.

### ◆ 2020년 산재 사망 40%가 60세 이상

#### ○ 중소 건설 현장 고령층 취업 늘어

-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확정 발표한 ‘2020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9년보다 27명 증가한 882명이었음.
- 다른 연령대 사망자는 모두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1년 전(285명)보다 62명 늘어난 347명이었음.
- 산재 사고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30.6%)부터 꾸준히 늘어 2017년

- 35.4%, 2018년 36.9% 등을 거쳐 지난해 39.3%까지 증가했음.
- 특히 60세 이상 사망자 중 절반 이상(55.3%)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건설업 사고사망자 (458명)의 60% 이상이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음.

◆ 맨홀 · 정화조 등 밀폐시설 질식 땀 일반 사고보다 사망률 50배 높아

- 3~5월 봄철에 많이 발생
  - 4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11~20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총 195건의 사고가 발생해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 재해자의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했는데,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 발생 시의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1.1%)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수치임.
  - 시기별 사고 건수는 3~5월 61건(31.3%), 6~8월 49건(25.1%), 12~2월 47건(24.1%), 9~11월 38건(19.5%) 순이었음.
  - 노동부는 “봄 · 여름철 오 · 폐수 처리와 정화조, 하수도 · 맨홀, 축사 분뇨 처리 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해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고 최숙현 선수 산재 인정... 체육계 처음

- 근로공단 “괴롭힘, 사망 원인”
  - 4월 2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4월 8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 선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음.
  - 경주시체육회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어온 최 선수는 2020년 6월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음.
  - 판정위는 최 선수가 당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봤음. 최 선수는 2017~2019년 경주시청팀에서 감독, 트레이너, 선배 등에게 뺨이나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이들의 강요로 억지로 빵을 먹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음.
  - 최 선수는 2019년 받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 공황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음.
  - 이번 판정은 가해자들의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1심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은 징역 7년, 안 모 운동처방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음. 검찰은 이들이 최 선수의 죽음

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 결정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할 수 있음.

#### ◆ 감정노동자 우울장애, 일반 노동자의 4배

##### ○ 서울 강동구, 공공부문 종사자 405명 실태조사

- 5월 10일 서울 강동구가 지난해 8~11월 관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40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감정노동자의 6%가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감정노동자의 5%는 급성스트레스장애를, 2%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음.
- 보건복지부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조사(2016년) 기준 주요 우울장애(1.5%), 외상후스트레스장애(0.5%), 범불안장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임.
- 감정노동자 2명 중 1명은 하루 일과의 거의 모든 시간(45.9%)을 고객 응대 업무에 할애하고 있었음. 또한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받는 정신적·성적 폭력은 남녀 모두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6%는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
- 강동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 중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 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음. 공동주택 노동자·필수노동자·이동노동자·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를 업무별로 세분화해 각각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
- 2021년부터 주요 민원부서의 행정전화를 기존 선택 녹음에서 자동 녹음으로 변경해 민원인의 각종 폭언·욕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음. 또 구청 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강동·송파·강남구에 위치한 18개 외부 전문상담기관 이용도 지원함.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정신건강검진기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 20대 넷 중 한 명 '위험한 수준 우울'

##### ○ 20대 우울감, 다른 세대 모두 앞질러

- 5월 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21년 4월 이슈 통계'에서 19~29세 청년층의 25.33%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는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30대는 24.16%, 40대는 18.67%, 50대는 18.67%, 60세 이상은 13.24%였음.
- 특히 '심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20점 이상이 나온 비율이 19~29세는 4.58%로 30대(2.31%)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음. 40대는 3%, 50대는 1.45%, 60세 이상은 3.38%가 심한 수준이었음.
- 우울감 정도 조사 결과에서도 19~29세 청년들은 6.36점이 나와 30대(6.03점), 40대(5.41

점), 50대(5.34점), 60세 이상(4.48점)에 견줘 가장 높았음. 세부 문항을 보면 ‘피로’, ‘흥미와 즐거움 없음’, ‘수면 문제’, ‘희망이 없다고 느낌’ 등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특히 12월 조사에서 최근 2주 동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한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20대의 비율도 16.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대가) 타 연령 대비 우울을 느끼는 비율이 높고 고위험군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타 연령대와 유사한 것에 비해 불안과 우울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음.
- 이번 결과는 2020년 12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주관해 전국 광역 시도 거주 성인(19~70세) 2,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이며, 우울증 선별 도구 검사는 27점을 만점으로 하였고 정상 수준(0~4점), 가벼운 수준(5~9점), 중간 수준(10~19점), 심한 수준(20점 이상)으로 구분됨.

#### ◆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고용불안정 반영한 공정수당 도입

##### ○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행계획’ 수립

- 5월 5일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음.
- 경기도는 그동안 생활임금 1만 원 목표 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 도내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 등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호를 추진했음.
- 2021년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8개 단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 확대, 고충 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 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함.
- 경기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함. 2021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1%가량 높은 시급 1만 540원으로 확정했음.
-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정

- 규직 전환 지원, 감정노동자 심리 치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등 24개 과제를 추진함.
- 2021년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등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700명에게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함.

〈표 5〉 2021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시행계획

목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지원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책 과제 (7개)	① 비정규직 노동 여건 개선 ② 비정규직 채용 제한	① 권익보호 통합시스템 구축 ② 노동 환경 개선 지원 ③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	① 정책 추진체계 정비 ② 정책 홍보 확대
단위 과제 (38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운영 등 6개 과제	노동권익센터 광역기능 수행 등 24개 과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8개 과제

자료 : 매일노동뉴스.

### ◆ 집에서 육아만 하는 ‘3040 남성’ 급증

- 2021년 3월 기준 1만 3,000명 기록, 전년동월대비 6,000명 늘어
  - 4월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를 전담한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6,000명이 늘어난 1만 3,000명으로 집계됐음. 이는 1999년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폭도 2018년 3월 이래 가장 큼.
  - 일을 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인구는 20년 전인 2001년 3월 5,000명을 기록한 뒤 1만 명 이하 수준을 맴돌다 2020년 6월 1만 2,000명을 찍고 이후 1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육아를 전담한 남성은 30대(41.1%)와 40대(33.4%)가 대부분을 차지했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거나 노동 능력이 없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함. 이 가운데 육아 상태인 남성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들임.
  - 비경제활동육아휴직 중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남성은 일할 의사가 있는 상태로 분류돼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음.

### ◆ 등록장애인 263만 3,000명…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화 심각

- 10명 중 3명, 청각장애 고통
  - 4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

- 인은 1년 전보다 1만 4,000명 증가한 263만 3,000명이었음. 연령별로는 60대(22.9%)와 70대(22.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전체 등록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1%에서 2020년 49.9%로 늘었음. 장애 인구에서도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45.8%), 청각(15%), 시각(9.6%), 뇌병변(9.5%) 순으로 장애 비율이 높았음. 지체장애는 2010년(53.1%) 이후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각·발달·신장장애는 늘어나는 추세임.
  - 65세 이상 노년층의 유형별 등록장애는 지체(47.9%), 청각(23.5%), 뇌병변(10.9%), 시각(10.1%), 신장(3.0%) 순이었음.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62.6%)이었음.
  - 장애 특성은 2020년 새로 등록된 장애인(8만 3,000명)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음.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로 전체 비중보다 높았고, 청각(33.7%), 지체(16.6%), 뇌병변(15.4%) 순으로 청각장애의 등록 비율이 가장 높았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